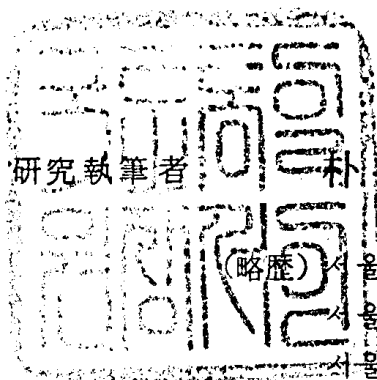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 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中長期政策

韓半島統一을 圍繞한 80年代 東北亞情勢展望



研究執筆者

朴

奉

植

(略歷)

釜山大學校 文理科大卒

慶熙大學校 行政大學院卒, 政治學博士

外灘大學校 政治學教授

刊行責任

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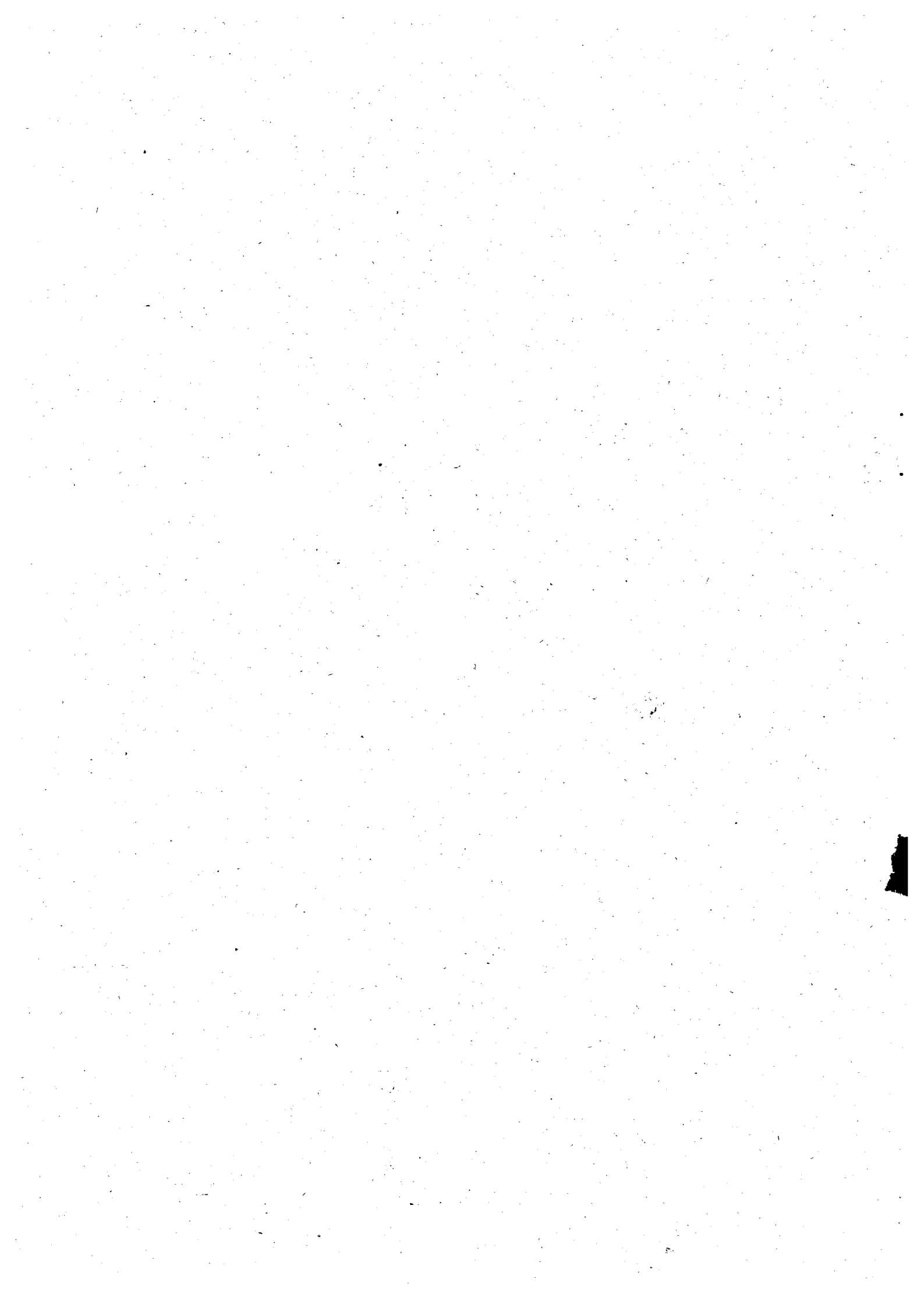
壽

一 (政策企劃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I. 序 論	1
II. 美地上軍撤収와 새로운 韓·美關係의 展望	4
(1) 美地上軍撤収의 論理	4
(2) 1977年7月の 韓·美國防長官會議와 美軍撤収問題	15
III. 北傀의 對外關係狀況과 韓國의 統一問題	23
IV. 80年代 東北亞情勢展望과 統一問題의 展開	36
(1) 美地上軍撤収에서 오는 情勢	36
V. 맺 는 말	43



I. 序 論

韓半島周邊의 政治情勢는 美·蘇間의 기본적인 勢力均衡-東北亞 및 太平洋을 中心으로 하는것-과 南北韓間의 軍事力均衡이라는 二重的인 構造의 安定 또는 變化속에서 決定된다. 美國의 이러한 對 小均衡者로서의 役割이 깨트려 지는 경우 南北韓間의 均衡은 意味가 없으며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 南北韓間의 均衡은 現단계에서는 또는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맞지 않더라도 美國의 軍事力 配置方法에 의하여 調整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韓半島周邊 情勢의 결정적인 要因은 美國의 軍事力과 政策姿勢가 소련의 勢力을 견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다.

물론 南北韓間의 軍事力均衡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설혹 南北韓間의 軍事力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기우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美·蘇均衡이라는 外廓에 의하여 壓迫될 수 있었다. 특히 美國이 韓半島에서 軍事力을 前進配置시켜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런데 최근 美國이 越南에서 後退와 東南亞와 東北亞에서도 이 前進配置의 상태를 修正하는 상황에서는 局地的인 均衡 특히 南北韓間의 軍事力均衡의 重要性을 갑자기 커진다고 하겠다.

설혹 美國은 韓國으로 부터 美地上軍을 철수하더라도 美國의 亞細亞에서의 防衛構造를 훼손함이 없이 이를 實施할 수 있다는 입장을¹⁾

註 1) 1977年 2月 1日 Mondale 副統領의 日本에서의 演說·朝日新聞 (日本) 1977年 2月 2日 字

취하고 있으나 이것이 實際 가능하려면 여러가지 條件이 갖추어지
치 않으면 안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美国이 東北亞
地域에서 軍事力的인 姿勢의 기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즉
美地上軍은 철수하더라도 亞細亞地域 同盟國과의 協力關係의 再構成
을 통하여 美国이 主導하는 全体로서의 軍事力이 對蘇關係에서 均
衡이 취해지도록 調整 編成되지 않으면 안된다.

美国을 中心으로 亞細亞諸國이 모두 防衛條約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 條約들이 모두 1950年代 前半期에 체결되었고 또 이들 條約
들이 체결될 當時의 亞細亞地域의 政治情勢는 70年後半인 지금과
는 많이 다르며 또 美国의 政策的 觀念도 크게 변하고 있다.
亞細亞의 諸國등도 安保의 基本은 美国의 軍事力의 存在에 依存하
면서 各己 經濟 社会的 條件의 變化로 美国과의 關係의 再調整을
必要로 하고 있다.

이러한 美国을 위시한 여러나라의 變化된 關係狀況의 代表的인
例가 駐韓美地上軍의 철수이며 이 撤収는 또 나아가서 韓·美關係
와 美·日關係 그리고 韓·日關係의 再調整을 不可避하게 할 것이
다.

이러한 再調整이 無理없이 進行될때 비로소 韓半島周邊의 情勢는
安定될 것이며 여기서 南北韓關係의 安定의 기틀이 잡히게 될 것이다.

北韓을 中心으로 하는 소위 北方三角關係에는 현재 별다른 變化
가 없다. 北傀와 中共은 계속 政治的 紐帶를 유지하고 있으며
北傀와 소련은 共產主義國家들로서 유지할 수 있는 基本的인 正確
한 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中·소對立이 계속되는 한 北傀의 周

辺情勢는 크게 변화할 요인이 없다. 굳이 변화의 요인을 생각한다면 美国과 日本이 北傀와의 접촉을 성립시킴으로서 생기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同盟關係의 轉倒와 같은 현상은 가까운 장래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駐韓美地上軍의 철수는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의 安保와 統一問題에 새로운 局面을 제기해 준다. 종래 駐韓美国의 戰略的 役割이나 政策性格은 여러가지 角度에서 論議되어 왔다. 그러나 「카터」政府에 의한 駐韓美軍에 관한 政策은 東北亞에서 과거 20餘年間 지속되어온 安定된 秩序의 再編成을 예견하기 까지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政策의 轉換은 우리의 安保体制의 再定立을 不可避하게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統一問題를 전제로 하는 南北韓關係狀況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論文에서 筆者는 첫째로 美地上軍 撤収에 대한 美国의 政策 態度를 分析하고 여기에 따른 韓美關係의 1980년에 있어서 새로운 展開狀況의 예측해 본다.

둘째로 北韓의 對外關係狀況을 성격を 分析하고 이 側面에서 부각되는 우리 安保와 統一問題의 運轉을 檢討해 본다.

셋째로 美地上軍이 떠난 상태에 있어서 그리고 美国과 北傀간의 關係에 어느 정도의 架橋가 놓여진 상태에 있어서의 南·北韓關係를 展望해 보고 이 경우 우리 平和統一 政策을 중심으로 하는 統一問題의 展開狀況을 分析해 보고저 한다.

II. 美地上軍撤収와 새로운 韓·美關係의 展開

(1) 美地上軍撤収의 論理

駐韓美軍의 減縮 또는 撤収에 관한 기본적인 論理는 美國의 東北亞地域 즉 非歐洲地域을 歐洲地域과 區別하는 認識에서 出發한다. 그리고 非歐洲地域에서의 美國의 消極的인 태도나 審判官的인 자세는 美國은 이地域에서 領土的野心이 없다는 말로서 總體 說明해 왔다.

領土的野心이 없기 때문에 그 領域을 지키기 위해 美國이 生命을 바쳐야 할 理由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論理에서 東北亞에 美國의 政策의 原則을 두가지로 集約해 볼 수 있으며 오늘날 美國의 이 地域에 대한 軍事力的 姿勢의 修正도 이러한 두가지 原則중의 하나에 입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美國은 亞細亞大陸地域에 領土를 얻거나 영향력을 수립하기 위하여 兵力을 使用하지 않으려 하였다.

예컨대 淸國의 開國過程에서 보면 英仏의 背後에서 이들 나라를 지원은 하되 앞장서기를 꺼려했다. 그러나 단 最惠國待遇에 관한 條項이나 門戶開放政策을 내세워 通商上의 利益은 均점하여 왔다.

그리고 1945年8月 韓半島作戰을 소련에게 맡기고 직접 作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물론 當時 比律賓作戰의 지연이 이유이었으나 印支半島도 英國과 國民黨政府軍의 作戰領域으로 정해졌던 사실은

집작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1945年이래 中國大陸에서의 國共間의 긴 싸움에서도 美國은 軍事的으로 介入하지 않았다. 물론 當時 戰爭이 일단 끝난 상태에서 敵性이 애매한 毛沢東軍과 싸우기 위해 兵力을 投入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설혹 당시 蔣介石政府에 대한 評價가 좋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여하튼 個別的으로는 事件 자체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結果的으로 보면 美國은 東北亞地上戰에 介入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해 왔다.

둘째로 美國은 東北亞地域에 어느 한 나라가 霸權을 수립하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예컨대 露日戰爭이후 第2次大戰에 이르기까지의 美國의 對日政策이 이를 說明하고 있으며 中·蘇가 1950年 2月 14日 同盟을 체결한 상태에서 韓國戰爭이 發勃하자 北傀의 南侵을 소련의 霸權 樹立기도로 보았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美國의 東北亞大陸政策은 地上戰에 介入하지 않는다는 原則과 이 地域에 어느 한 나라가 霸權을 수립하는 것을 反對한다는 두개의 政策原則에 입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의 東北亞의 政治狀況은 中·蘇간의 對立 日本의 成長과 經濟大國으로의 登場등으로 東北亞는 어느 한 나라 즉 美國의 利益을 侵害하는 한 나라의 手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美國의 地上軍이 韓國에 주둔해야 할 理由는 一般論的인 觀點에서도 없다는 입장이라 하겠다.

이러한 立場에 따른 駐韓美軍의 減縮 또는 撤収의 政策은 1969年 7月 「닉슨」독트린으로 淸명되었다. 「닉슨」大統領은 「괘」島에서의 演說에서 核武器에 의한 위협이 아닌 在來式 方式에 의한 武力侵攻이나 「게릴라」戰에 대해서는 美國은 地上兵力을 投入하지 않을 것이며 共產側에 의한 명백한 外侵의 事態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美國의 介入如否와 軍事力의 投入如否는 「美國의 利害와 公的 그리고 同盟國들의 努力」을 고려하여 決定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물론 이러한 「닉슨」독트린은 越南戰爭이 기대했던 대로 「名譽롭게」 끝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큰 注目을 그동안 받지 못하였다.

當時 越南에 발이 묶여 如意치 못한 사태였기는 하나 당시 美國政府는 적어도 海外駐屯軍과의 關係에서는 그 兵力을 本國으로 데리고 간다는 基本的인 자세를 취해 왔다. 예컨대 「닉슨」의 「괘」島演說이 나오기 직전인 1969年 6月 3日 下院歲出委員會에서 의 「레어드」國防長官의 秘密証言에서 볼 수 있다. 즉 그는 「韓國에서 現在 規模의 美軍을 無限정 駐屯시킬 필요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美國은 현재 越南戰의 越南化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韓國에서의 우리의 活動도 가능한 早速한 時日內에 韓國化하는 方向으로 추진하기로 희망한다」고 証言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意見은 時期와 사람에 따라 약간식의 差異는 있었으나 일반적인 論旨가 되어 왔다. 變化한 時代에 있어서 美國의 政策的 姿勢를 비교적 精確하게 표현했던 駐韓美軍에 관한 論說 몇가지를 論評함으로써 美地上軍撤収에 관한 心理的 狀況을 경

해 그들의 論理를 보다 자세히 설명해 보고저 한다.

오늘날 駐韓美軍撤収論과의 關聯에서 가장 포괄적인 論述은 「아브라모비츠」의 「韓半島의 解氷動向과 強大國關係」²⁾이다.

이 論文의 筆者는 이 序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休戰이 체결된지 18年이 지난 오늘 韓國問題는 여전히 終結상태에 있다. 두개의 獨逸의 경우와는 달리 두개의 韓國간에는 關係改善을 위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平和的 再統一이란 修辭的 表現이거나 잘되어 보았자 먼 장래의 일이다. 統一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韓半島周辺의 列強間에 심각한 變化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南北韓 兩 또는 어느 한쪽에서라도 體制面에서 變化가 있어야 한다. 平和統一의 展望보다 더 現實的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金日成에 의한 武力統一의 可能性이 많으며 時間이 훨씬 지나면 現南韓政權보다 덜 保守的인 軍事政府에 의하여 統一되거나 또는 兩者간의 충돌사고가 보다 큰 敵對行爲로 擴大될 가능성이 있다. ……兩쪽에서의 軍事力化의 과정은 步調를 맞추고 進行되고 있다.」 「아브라모비츠」는 南北韓關係가 兩韓이 有利한 方向으

註 2) Morton Abramowitz, Moving the Glacier: The Two Koreas and the Powers, Adelphi Papers No.80, International Institution of Strategic Studies, September 1971
筆者는 현재 美國防省高位官吏로 있다. 이 글 이후 印支共產化와 南北韓解氷의 不進등이 있어 所見이 다소 변하고 있었는지 모르나 그의 이러한 情勢觀은 美國當路者들의 기본적인 인식이라 보아 大過없을 것이다.

로 움직이고 있고 韓國軍이 美國의 兵站支援과 空軍支援만 있으면 北傀單獨의 南侵은 저지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고 하고 또 美國이 韓國軍에 대한 統制의 能力 또는 技能이 약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中共과 소련이 北傀가 侵攻當했을 때 지지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南侵을 교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韓半島周邊情勢와 관련하여 이곳에서는 四大國이 모두 같은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특히 日本이 韓國에 再登場하고 있음을 다소 신경질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日本과 너무 가까워 지나기 때문에 미처 意識을 하지 못하는지 모르나 마치 日本이 다시 韓國을 占領이라도 한듯이 서술하고 있는 면을 본다. 韓日國交正常化이후 日本의 韓國에서의 經濟的役割은 美國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으며 日本政府는 韓國問題에 민감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日本의 役割增大에 대한 그의 評價가 正確하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韓國에서 일어나는 事態는 美·日關係와 美·中共關係의 發展 그리고 아마도 결국에 가서 「아시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日·中共關係의 發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美國의 韓國에 대한 判斷은 美國이 어떠한 형태의 日本을 바라고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形態의 霧圀氣와 安保狀況을 「아시아」에서 바라고 있느냐에 關聯되어 있다고 하고 있음은 注目을 要한다.

이러한 「아브라모비즈」의 論述에서 제기되고 있는 駐韓美軍에 관한 言及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美國의 對韓防衛公約에 대한 一般 美國民의 지지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서 韓國과 韓國 戰爭에 대해서 아무런 意味를 느끼지 못하는 世代의 進出, 越南戰爭에의 介入으로 過多한 海外介入反對의 輿論, 美國自體內의 諸問題에 대한 資金과 關心의 集中을 들고 있다.

둘째로 美國政府는 海外問題에 대한 介入을 縮少시키고 있다는 것을 輿論앞에 證明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으로 美軍의 계속 駐屯 必要性이 議會와 國民들에게 명백하게 밝혀지는 경우에라도 그 기간은 數年間에 不過할 것이다.

셋째 만일 韓國에 戰爭이 시작되고 또 여기에 中共까지 관계되었을 때 美國이 그의 兵力이나 혹은 戰術核武器를 사용할 것이라고 아시아國民들이 확신해도 좋을지. 의문이다.

넷째 美地上軍을 撤收시키는 대신 美軍師團을 特殊旅團規模로 縮소시켜 이것을 서울과 非武裝地帶의 中間廻廊에 배치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이 特殊旅團에 戰術核武器를 제공하는 경우 美國大統領에게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줄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1976年 美國의 大統領選舉에서 「카터」가 核武器를 韓國으로 부터 撤收한다던지 空軍을 중심으로 하는 1萬餘의 兵力을 남긴다던지 한 見解의 背景이 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駐韓美軍의 撤収를 통해 현재의 韓美關係에 기본적인 再檢討를 가해야 할 것을 주장한 사람으로 「해리슨」(Harrison)을 들 수 있다. 그는 1974年 金日成을 만나고 난 후 쓴

「하나의 韓國?」³⁾ 이란 論文에서 金日成을 統一을 열렬히 바라는 共產主義的 民族主義 또는 民族主義的 社會主義者로 보고 있는 사람이다. 問題를 客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論評의 價値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論文이 「카터」新大統領의 補佐役이 많이 나온 「부루킹스」研究所에서 나온 定期刊行物에 실렸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를 간과할 수 없으며 또 이 글의 Rhethoric 의 많은 부분이 그뒤 同研究所에서 나온 「카터」内外政策의 指針書와도 같은 「國家的優先順位를 정하는 問題」(Setting National Priorities)⁴⁾에서 散見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해리슨」의 上記 論文이 「카터」의 駐韓美軍撤収決定에 미친 영향은 클것 같다.

특히 駐韓美軍의 철수만이 아니라 종래의 韓美關係에 根本的인 再檢討를 가해야 한다는 見解의 代表的인 것이라 하겠다.

그는 첫째로 中·蘇對立으로 인하여 美國이 韓國戰爭에 參戰했던 당시의 상황은 없어 졌으며 따라서 美國이 있을 수 있는 南北韓간의 충돌에 介入할 正當性이 없어 졌다는 입장이다.

둘째로 南北韓間 紛爭은 不可避한데 이 紛爭은 美國을 위한 것도 아니고 南北間의 事情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美國

註 3) Selig S. Harrison, "One Korea?" Foreign Policy, Brookings Institution, Winter, 1974-1975, PP.36-62

4) Henry Owen and Charles L. Schultze, editors, Setting National Priorities: The Next Ten Years(Brooking Institution, 1976)

이 말려들 필요가 없고 勝利者와 손을 잡으면 된다는 태도이다.

셋째로 駐韓美軍이 撤収한다고 해서 北傀가 全韓半島를 占領할 가능성도 없으며 설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美國에게 큰 損害가 없으며 철수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 큰 危險에 露出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韓美關係觀은 바로 北傀側의 言說을 그대로 받아드린 姿勢에서 나온 것이라 해석된다.

그리고 美地上軍의 撤収와 關聯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로 1970년에 시작한 韓國軍裝備現代化計劃이 끝나는 1980年 이후에는 軍裝備供給을 現金베이스로 하게 함으로서 對北傀政治妥結에서 오는 危險度와 裝備強化의 負擔度를 저울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韓國側이 政治不安에서 對北傀政治妥結을 기피하고 있는것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見解는 公正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로 1980년까지는 美國의 모든 戰鬪部隊를 撤収한다는 計劃을 미리 發表하며 이 撤軍은 核裝備軍과 在來式 軍事力을 포함한다. 이 경우 戰術飛行團은 이웃 海域에 주둔해서 韓國에의 配置를 割當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셋째 美軍과 基地를 철수한 후 있을 수 있는 外部의 干涉위험을 防止하기 위하여 韓美防衛條約을 修正하여 이를 지속시키며 美軍撤収 發表와 同時에 美國이 北傀에 대해 外交的 및 經濟的 接觸의 用意을 표명한다. 그리고 日本이 北傀와 접촉하더라도 美·

日關係의 利害와 충돌하지 않는 것임을 명백히 해둔다고 하였다.

이러한 見解는 「카터」의 撤軍計劃의 觀念的인 基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南北韓간의 불가피한 衝突에서 南韓이 敗할지도 모른다는 悲觀論 또는 反韓的 態度라는 점에서 이 「해리슨」과 비슷한 見解를 갖는 사람으로 「라이샤워」(Reischauer) 教授를 들 수 있다.

그는 1975年 學生소요와 教會를 中心으로 하는 宗教界의 反政府活動을 보고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은 內容의 見解⁵⁾를 표명하였다.

첫째로 韓國의 政治體制가 어떠한 것이던 간에 南韓의 防衛는 美國의 利益에 干渉하지 않다. 따라서 美國의 極東防衛線은 韓國 海峽으로 하는 것이 더욱 軍事的으로 尤宜하다.

둘째 돌연한 撤軍은 日本을 자극하여 軍國主義로 흐르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리고 또 南韓에도 政治的 方向設定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數年間에 걸쳐 서서히 진행해야 한다.

셋째 美·蘇·日本은 南北韓의 紛爭이 強大國간의 紛爭으로 擴大되지 않도록 하는데 合意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上記 「해리슨」이나 「라이샤워」와 같이 先入見을 그대로 表現한것은 아니나 「카터」의 撤軍計劃 그 차제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일찌기 우리에게 전해 준 사람은 「브레크멘」

註 5) Edwin O. Reischauer, "Mounting Tensions in Korea,"
Newsday, June 22, 1975.

(Blechman) 이다. . 그는 1976年 美国大統領 選挙期間중 「카터」候補를 위한 25名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의 한 사람이며 「부르킹스」研究所의 国防關係首席研究員 (A senior fellow and head of the defense analysis of Staff)이다.

그는 1976年7月20日 「서울新聞」⁶⁾에 기고한 論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韓國에 대한 公約은 東南亞의 경우와는 달리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理由는 韓國인들이 自己防衛의 명백한 決意를 갖고 있고 韓半島의 安定이 美·蘇·中共·日本관계의 安定된 關係를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美国의 韓國에 대한 皮와 財貨를 통한 投資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다.

한편 그는 美国의 對韓防衛公約이 현재의 美軍兵力水準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美軍의 配置를 減縮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公約에 따르는 費用이 적으면 적을수록 駐韓美軍에 대한 美国内の 反對는 적어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 있다.

첫째로 戰術核武器의 除去를 주장하고 이 武器가 쓰여질 事態가 있을것 같지 않으며 만일 必要한 경우 隣近地域에서 도입해 올 수 있다고 한다.

둘째 모든 美軍兵力의 점진적인 撤수를 제안하고 있다. 司令部

註6) Barry M. Bleckman, "U.S. Troops and Korean Security"
서울新聞 1976年7月20日字

要員 對韓軍援關係官를 航空旅團등은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철수하며
그러하더라도 韓國軍이 裝備만 갖추어지면 北傀를 対応할 수 있다
고 하고 있다.

셋째로 長期的 軍事協力計劃의 시작을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計劃들이 實踐에 옮겨지는 경우 駐韓美軍을 12,000 ~
15,000 까지 줄일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減軍으로
韓國軍의 增強 經濟力 政治的 決心과 더부러 弱한 자세가 아니라
힘의 姿勢에서 減縮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크러프」(Clough)⁷⁾의 見解도 소개함직
하나 要点에 있어 「브레이크맨」의 것과 같은 것이기에 약한다.

이러한 見解들이 背景이 되어 「카터」의 選舉公約으로서의 駐韓
美軍撤収가 제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의 安保에 대한 公約은 그 自体로서 또는 日本安保에
대한 關鍵으로서 再確認한다.

둘째 신중하고 주도한 計劃위에서 美地上軍을 移動配置하고 또
漸進的으로 4~5年 동안에 完全 撤収할 수 있다.

셋째 戰術空軍과 海軍은 残留한다.

넷째 核武器는 철수한다.

이러한 撤軍이 軍事的으로나 政治的으로 韓美關係 및 有關係國에게

註 7) Ralph N. Clough, Deterrence and Defense in Korea:
The Role of U.S. Forces,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76.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는 本章의 末尾에서 言及하기로 한다.

(2) 1977年7月の 韓美國防長官會議와 美軍撤収問題

美地上軍撤収에 관한 原則은 公式的으로는 1977年7月26日 韓·美國防長官會議의 共同聲明⁸⁾에서 밝혀졌다. 이 共同聲明은 12個項目으로 되어 있는데 첫部分에서는 美國大統領과 美國의 韓國防衛에 대한 公約을 再確認하였다. 특히 이 會議에 참석하는 「브라운」(Harold Brown) 長官은 「카터」大統領이 韓國大統領에 보낸 親書⁹⁾를 傳達하였는데 그 內容과 精神이 共同聲明의 첫 부분에서 전달되고 있다.

물론 美地上軍을 철수한다는 原則과 이를 4~5年內에 실시한다는 時限은 美國이 一方的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韓美國防長官會議에서는 協議의 對象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部分은 美國의 韓國에 대한 防衛公約의 再確認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두번째로 撤軍의 方法으로서 共同聲明 제5항에서 美國은 4~5年에 걸친 단계적인 撤収이며 韓國軍의 強化와 現代化의 조치가 同伴하는 경우 韓半島에서 軍事的 均衡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점과 관련하여 韓國側은 先補完 後撤軍을 주장하였고 美國側은

註8) 共同聲明 text 는 The Korea Times, July 27, 1977.

9) 親書 Text 는 The Korea Times, July 26, 1977.

撤収와 補完을 並行할것을 주장하여 兩者의 立場이 共同声明에서 並記되었다.

그리고 「브라운」長官은 美空軍 海軍 情報 兵站 및 其他支援部隊은 남는다고 하고 있다. 이어서 韓國에 있는 美戰術空軍과 韓國 周邊의 陸海空軍은 이 地域에서 美國의 決意의 表示라고 하고 있다.

셋째로 地上兵力 6,000名 즉 제2步兵師團의 3個旅團중 1個旅團이 78年末까지 철수하고 師團司令部와 2個旅團은 撤収의 最終段階에 까지 남는다고 하였다.

넷째로 撤軍에 따른 補完措置로서 駐韓美軍保有의 裝備移讓 武器 販賣借款의 追加供與 기타 一般的 支援등을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防衛産業分野의 支援 共同軍演習의 계속과 擴大등을 약속하고 있다.

共同声明에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撤軍補完措置의 하나로서 美國側은 駐韓美軍裝備 無價移讓 5億弗 軍事借款 年2億7,500万弗의 4年分 11億弗 일시引渡特別借款 3億弗 計19億弗을 1982年까지 원조하는 案을 美國議會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 졌다.¹⁰⁾

다섯째로 韓國防衛를 위한 作戰上의 效率性を 높이기 위하여 韓美聯合司令部를 設置하기로 하였고 休戰協定이 有効하는 한 그리고 平和유지 기구로서의 유엔軍司令部는 계속 존속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韓美間은 韓半島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기로 하였으며 韓國

註 10) 「朝日新聞」(日本), 1977年7月27日

이 제안한 不可侵協定을 포함하는 政策的인 이니셔티브를 취하기로 하였다.

韓·美間의 國防長官會議로서 美地上軍撤収에 관한 原則과 時期 및 方法(補完措置포함)에 관한 合意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完全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첫째로 撤軍問題가 美國內政治의 잇슈화한데 있다. 撤軍이건 減縮이건 軍部와 專問家등에 의한 研究 檢討의 결과 실시된 것이 아니라 一種의 政治的 決定이란데 問題가 있으며 撤軍에 따른 補完措置에 있어서도 美國議會의 承認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韓國의 防衛問題가 항상 美國 國內政治의 論争對象이 된다는 점이다.

「로저스」美陸軍參謀總長의 証言¹¹⁾에 의하면 軍部에서는 1982年 9月 30日까지 7,000名의 撤収가 가능하다고 大統領에게 건의하였으나 大統領은 33,000名을 철수하는 것으로 決定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77年 7月 「브라운」長官을 따라 38線 周辺을 시찰한 「벤티시」(John W. Vessey) 유엔軍司令官이 記者들에게 「美地上軍이 韓國에 주둔한다는 것은 北傀에게 韓國과 美國兩國과 同時에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信號이고 地上軍을 철수한다는 것은 이 信號를 철거하는 것이 된다」¹²⁾고 하였다.

註 11) The Korea Times, July 15, 1977.

12) The Korea Times, July 26, 1977.

이렇게 본다면 撤軍에 따른 補完問題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된다. 이 補完이 美國의 支援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問題이다. 그리고 특히 美國이 1982年까지 19億弗의 支援을 實踐에 옮기는 경우에 있어서도 攻擊用 武器는 가능한 韓國에 넘기지 않으려는 것이 그들의 태도이다. 駐韓美軍이 가진 裝備를 韓國에 移讓=販賣하는 경우에도 「어네스트 존」의 核武器部分 8인치砲 및 M 60 탱크는 販賣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³⁾

둘째로 이 問題와 關聯하여 소위 補完措置에 關한 概念 즉 어느 程度가 補完이나의 問題에 대해 韓美간 見解의 差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韓國側은 對北傀抑止力으로서의 美地上軍이 除去된다면 우리가 스스로 抑止力 즉 北傀의 있을 수 있는 攻擊에 대한 報復的 攻擊力을 갖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美國側에서는 이 報復的 攻擊力은 美國에 依存하라는 입장인 것 같다. 예컨대 윗項에서도 지적한 바와 있으나 특히 「브라운」國防長官은 韓美國防長官會議를 끝내고 歸美하여 Northern California World Affairs Council 에서 7月29日 演說하면서 韓國의 空軍力增強을 도와주는 것은 美國의 現在의 意圖가 아니며 그 部分的인 理由는 韓國이 지금 陸軍을 增強시키는데 注力하고 있기 때문에 空軍力까지 增強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짐이 될 것이

註 13) The Korea Times, August 5, 1977. 및 東亞日報 1977年 4月 15日 字

기 때문이라고 한다. (It would, I suppose, be conceivable to build up or help the South Koreans build up a substantial air force capability. "..." That's not our present intention - partly because that would be a very, very, expensive additional burden on the Koreans,).

그리고 同長官은 9月5日字의 U.S. News and World Report 紙와의 會見에서도 韓國을 訪問한 결과 韓國이 적절한 能力을 갖추면 防衛할 수 있고 또 4~5年間に 걸쳐 抑止力과 防衛力を 계속 제공할 수 있는 方法으로 軍事力 構造를 세울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더 安定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內容을 英文 그대로 실어 補完의 概念에 대한 美國側의 입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즉 "My recent trip there reaffirmed my view that we can provide the Koreans with the capabilities to deter attack on and defend South Korea to deter by being able to defend. We can do this - given congressional support for the progress." "Over this period of 4 or 5 years, the military structure can be built up in such a way as to continue to provide deterrence and defense. And once we do that, the big advantage of having done it is that you are more stable than you are now." 15)

註 15) U.S. News & World Report, September 5, 1977, P.23.
Interview with Harold Brown.

여기서 두가지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첫째로 "to deter attack on"이라고 해놓고 "deter"란 말에 대한 해석으로서 "to deter by being able to defend"라고 해서 防衛할 수 있음으로서의 抑止 즉 防衛力이 곧 抑止力이라 함으로서 抑止力 本來의 뜻에 맞는 能力을 갖추어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둘째로 "The military structure can be built up in such a way as to continue to provide deterrence and defense"라고 함으로서 抑止力과 防衛力을 계속 제공하는 方法으로 軍事力 構造를 만들수 있다고 함으로서 韓國의 Military structure는 美國의 抑止力과 防衛力에 계속 依存하는 형태로 만들어 진다는 뜻으로 해석되는것 같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카터」大統領이 對外武器販政策을 発表¹⁶⁾ (1977年5月19日) 하면서 NATO와 日本, 濠洲, Newzeland 등과는 달리 韓國과는 防衛産業의 共同開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韓美國防長官의 共同聲明의 大綱에서는 「美國政府의 武器販賣政策의 테두리 안에서 韓國이 北傀의 侵略을 抑止할 能力을 갖게 하기 위하여 優先基準에 따라 적절한 武器를 購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交渉当事者의 誠意는 表現되었지만 "Within the content of the U.S. governments world wide arms transfer policy"

註 16) 「朝日新聞」(日本), 1977年5月21日

라고 함으로써 武器販賣對象國중 一等國에서 韓國을 빼어 놓은

「카터」의 政策은 克服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하다.

셋째로 중요한 問題는 소위 作戰指揮權의 問題이다.

共同聲明에서는 「韓國防衛를 위한 作戰上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韓美合同軍司令部를 만든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休戰協定이 존속하는 동안 유엔軍司令部가 존속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유엔軍司令部가 최고의 作戰指揮權을 갖고 韓國側이 副司令部가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1982年 美地上兵力이 모두 철수하고 난 뒤에는 이 合同軍司가 存続될 수 있느냐, 存続되면 어떠한 形態로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의 問題이다.

1950年 7月 大田協定에 의하여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이 유엔側 즉 美國側에 넘겨진 이후 오늘에 까지 계속되고 있다.

見解에 따라서는 美地上軍이 없더라도 美國側이 作戰指揮權을 갖는 경우 美國의 公約이 確認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見解는 現實的이 아니다. 첫째로 美國으로서는 美國의 利害가 걸려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美國의 發言權을 유지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는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美國의 公約을 상징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美國에 의한 作戰指揮權의 保有가 美國地上軍이 철수하는 1982年이후는 현실적으로 不可能할 것이며 그 이후는 韓美聯合軍司令部의 存続과 性格은 修正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休戰協定이 존속됨으로서 유지의 必要가 있는 유엔軍司令
部도 결국 休戰會談을 위한 形式的인 代表이상의 意味가 없으며
實質的인 休戰狀態를 代表하거나 여기에 責任을 지는 代表로서의
役割을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것이다.

Ⅲ. 北傀의 對外關係狀況과 韓國의 統一問題

北傀의 對外關係狀況은 理論上으로는 첫째로 對中·蘇關係 소위 北方三角關係를 분석하고 둘째로 北傀의 소위 自主路線과 소위 제 3 세계와의 關係를 分析하고 셋째로 對西方國家政策을 分析하는 것이 順序일 것이다.

그러나 첫번째의 北方三角關係에 관해서는 이미 充分한 研究가 있으며 새로히 項目을 설정해서 紙面을 割愛할 必要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소련이나 中共이 北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의 한 두가지 例는 들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項에서는 中·蘇의 對北傀태도를 간략하게 다루고, 둘째로 최근 유고스라비아의 대통령 「티토」가 平壤을 訪問한 일과 관련하여 北傀의 對外政策姿勢를 보기로 하고 끝으로 北傀의 對美平和條約 체결 攻勢를 보기로 한다.

먼저 中·소가 金日成의 生日을 대하는 태도를 보기로 한다.

1977年 4月 15日 金日成의 生日에 즈음하여 中共黨 主席 華國鋒과 소련共産黨 書記長 「브레즈네프」는 각각 祝電을 보냈는데 소련의 것은 內容이 儀禮的인데 그쳤고 다른 報道나 行事が 없었는데 비해서 中共側은 소련의 그것과 달랐다.

中共은 14日 北京一圓에서 金日成의 生日을 祝賀하는 行事を 하고 同時에 華國鋒은 그 祝電에서 「朝鮮人民의 偉대한 首領」이라고 호칭하는 同時에 金日成의 領導밑에 北傀黨이 「막스·레닌」主義 革命路線과 無産階級專制 社會主義의 길을 걷지하고 있다고 찬양하

었는데 이 電文 全文을 「人民日報」와 「解放軍報」에 게재하기도 하고 金日成 革命活動写真展示會를 열었다.

그리고 4月29日 「모스크바」放送은 「中國宣傳은 어째서 코메콘을 비방하는가」의 表題로 된 불가리아 新聞의 記事를 要約·報道했는데 여기서 中共이 자기들의 「非科學的 自力更生論을 普及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北傀가 中共과 같이 自力更生을 經濟政策의 主要路線으로 하고 있는데 間接적인 批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7)

다음으로 6.25 27周年을 즈음한 中·蘇의 태도 표명이다.

소련은 「푸라우다」와 「이즈베스차」를 비롯한 여러 出版物과 放送을 통해 「朝鮮人民의 鬪爭과의 連帶性月間」을 대대적으로 취급하고 駐韓美軍의 撤収를 要求하고 있는 北傀의 立場을 강력히 지지하는 同時에 北傀의 統一提案이 正當하다고 主張했다.

한편 中共은 「英雄的 人民의 빛나는 勝利」라는 表題의 「人民日報」의 社說 「朝鮮 祖國解放戰爭 記念日」이라는 表題의 「解放軍報」의 社說을 게재했을 뿐 소련의 경우 처럼 「共同鬪爭月間」에 관한 行事は 없었다. 그리고 中共의 경우 駐韓美軍問題에 관하여 소련보다 태도 表明을 하지 않고 있는 면이 특징이다.

그리고 5月末과 6月初에 걸쳐 소련과 中共이 각각 다른 代表團을 平壤에 보내고 있는데 이때 中共의 軍事使節團은 金日成의

註 17) 「月間北韓動向(77-5)」—南北對話用 參考資料, 會談事務局 作成(非公開)

接見을 받았는데 소련의 代表團은 그렇지 못했고 그리고 소련의 경우 駐韓美軍撤収를 강력히 주장하고 소·北傀간의 軍盟의 意義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¹⁸⁾

다음으로 1977年7月下旬 韓·美國防長官會議에 대한 中·소反應의 差異를 잠간 지적하고자 한다.

소련의 경우 黨기관지 「푸라우다」와 政府기관지 「이즈베스차」官營 「모스크放送」 國防省 기관지 「赤星」등은 韓美安保協議회가 끝난 7月26日부터 연일 解説과 論評記事를 실고 美國은 駐韓美地上軍 撤収에 관련한 補完措置란 구실아래 駐韓美軍事基地들을 사실상 종전보다 더 강화하려하고 있으며 韓國에 대해 최고 80億弗 상당의 新型武器등을 제공할 計劃을 세우는등 撤軍計劃 自体를 有名無實하게 함으로써 世界輿論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매스컴들은 또한 北傀에 대한 그들의 지지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소련은 앞으로도 韓半島平和를 교란하려는 어떠한 세력에도 지속적으로 대적해 갈것」을 다짐하기도 했다.¹⁹⁾

이와같은 소련의 論調는 美國의 對韓軍援強化등을 南北韓간의 軍事均衡補完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北傀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 같으며 이와 관련 北傀의 對소依存의 不可避性을 지적하고 저 한것 같다.

한편 이와는 對照的으로 中共은 최근에 이르기 까지 駐韓美軍撤

註 18) 「月間北韓動向(77-7)」 上同

19) 「内外通信」 32号(1977.8.10)

収問題에 거의 言及하지 않다가 8月의 제 11차 全党大會이후 北
傀의 美軍撤収주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본다.

끝으로 「8.15」解放記念日을 기해 北傀와 소련간의 關係를 보
기로 한다.

北傀는 「8.15」와 관련 5~10周年을 제외하고는 「중앙보고대
회」등 주요행사없이 통상 「로동신문」社說로 이날을 記念해 오고
있다. 1977年 8月 15日字 「로동신문」사설을 통해 「8.15」가
金日成의 소위 「革命軍」에 의해 「戰取」된 것으로 史實을 날조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소련은 「소련軍隊가 北韓에서 日帝侵略軍을 격멸한
이날은 北韓人民들의 새로운 政權樹立 노력에 특출한 계기를 마련
했다」고 하고 있다.²⁰⁾

여기에 대해 金日成과 朴成哲의 이름으로 된 14日字 答電에서
「우리는 8.15解放직후 부터 오늘에 이르는 짧은 기간동안 오직
우리黨의 강력한 영도밑에 현재의 사회주의 나라를 발전시켰다」고
하여 소련의 기여를 否認하고 있다.

이러한 北傀의 「金日成軍隊에 의하여 解放되었다」는 주장에 대
해 15日 「赤星」은 論說을 통해 「소련軍의 解放者的 使命에
감사하는 1천 7백만 朝鮮人民이 서명한 특이한 편지가 「모스크바」
博物館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註 20) 1977年 8月 13日 「브레즈네프·코시킨」 이름으로 平壤에 보
낸 電文, 内外通信, 제 34호. (1977.8.24)

이와같이 北傀는 金日成一家의 歴史를 날조하여 民族의 獨立을 위한 鬪爭史의 始源으로 하고 있는데 금기야 이것이 第二次大戰 終戰時의 소련의 役割을 否認하는데 이르고 있기 때문에 소련으로서는 방관할 수 없는 것 같다.

소련의 立場에서 본다면 二次大戰時 소련軍이 占領한 地域인 滿洲와 北韓이 소련에 敵對視하는 中共에 반환되었으며 北韓이 親中共的이란 사실은 소련의 이 地域에서의 政策의 失敗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소련은 駐韓美軍撤収와 關聯하여 이 地域의 軍事力 關係의 變化에 예민한 反應을 보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政權의 성격으로서는 北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나 軍事的 均衡의 面에서 北傀가 韓國으로 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이를 기회로 삼아 北傀에 영향력을 키우려 할 것이다.

둘째로 「티토」 유고大統領의 平壤訪問을 기해 北傀가 對外的으로는 제 3 세계와 같은 路線을 취함으로써 對소 및 對美關係의 姿勢를 整備하고 있으며 對內的으로는 對南統一戰線 路線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티토」는 지난 8月 16日 소련에 倒着 「브레즈네프」와 會談 19日에 共同聲明을 發表하였고 24日~30日까지 平壤을 訪問한데 이어 中共을 訪問하였다.

「티토」의 이번 東方三國으로의 行脚은 1948年이래 그를 비난 공격해 오던 「스타린」과 毛沢東이 죽고 없는 이들 나라를 訪問하게 되었는데 政治鬪爭에 있어서 長壽도 하나의 武器임을 말해주

고 있다.

平壤을 訪問한 「티토」는 金日成으로 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한때 中共을 따라서 修正主義와 帝國主義의 앞잡이라고 비난해 온 「티토」를 「自主의 祖·유고」의 大統領이라고 하면서 狂的인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金日成은 錦繡山 議事堂에서 「티토」를 맞이하는 宴會를 베풀었는데 여기서 그는 統一問題에 言及하여 「世界가 自主性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現代의 추세에 따라서 祖國統一에의 우리 人民의 民族的 念願은 반드시 實現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여 여기에 「自主의 時代」를 강조함으로써 「티토」를 맞이하여 金日成이 소련에 저항하는 心境을 표현하고 있음을 본다.

이어서 金日成은 對外政策과의 關聯에서 「우리 人民은 앞으로는 社會主義諸國人民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人民 歐洲의 進歩的 人民 自主性을 옹호하여 世界의 全人民과 굳게 단결하여 自己의 運命을 스스로 決定할 수 있는 新社會 新世界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있게 싸우며 帝國主義와 植民主義 支配主義에 反對하는 모든 나라 人民의 鬪爭을 적극 지지 聲援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北傀는 「티토」가 이끌어 오고 있는 소위 第三世界 路線으로서 金日成의 소위 抗日解放運動과 韓國으로 부터 美國을 밀어 내고 南韓을 解放시켜야 한다는 理論 그리고 소련의 支配에 抗拒하면서 美國을 위시한 西方側과 經濟的 接觸을 同時에 가능케 하는 理論的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본다.

특히 그가 「帝國主義와 植民主義 支配主義에 反對한다」고 하여

中共이 소련을 가리켜 霸權主義라고 한데 대해 北傀는 소련을 支配主義라고 표현하는 새로운 用語를 쓰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8月29日에 나온 「티토」 金日成共同声明에서도 그대로 表現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티토」는 答辭에서 印支三國과 앙고라, 모잠비크 등의 「歴史的 勝利」를 「自主的 民族的 社會主義的인 發展과 非同盟」의 勝利로 보고 있다.

이어서 그는 「非同盟運動은 帝國主義, 植民主義, 新植民主義와 모든 형태의 外部로 부터의 支配에 反對」한다고 하고 있다.

「티토」 金日成 兩者의 發言중에 共通的인 것은 「自主性的 尊重」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그가 「로 몽드」의 「앙드레·퐁테인」 (Andre Fontaine) 과의 會見에서 소련이 크게 反對하고 있는 유로코뮤니즘 (Eurocommunism) 을 지지했던 사실과 관련시켜 이 「自主性」 문제를 해석해 볼 必要가 있다.

그는 이 會見에서 「共產主義者는 누구라도 自國과 自民族의 問題를 먼저 解決하는 것이 國際共產主義的 義務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各國의 共產主義者는 自國의 實情에 맞추어서 모든 運動을 展開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느 한 나라도 자기의 共產主義運動의 經驗을 他國에 그대로 適用시킬 수 없다」 「他國의 革命經驗과 社會主義建設의 經驗을 기계적으로 모방해서 自國에 適用할 必要는 없다」고 하고 「유럽諸國의 共產主義者들이 自國의 實情에 맞추어 광범위한 階層과의 統一戰線을 實現하기 위하여 싸

우고 自主性을 견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다」고 하였다.

유로코뮤니즘이 소련으로 부터의 自主性 소련과의 영도력을 정당
화하는 國際共產主義의 連帶性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를 지지하고
있음은 北傀의 소련에 대한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고 그 正常性
을 「티토」의 路線에 依託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유로코뮤니즘이 프로레타리아獨裁를 거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세는 對南統一戰線戰略을 정당화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
다.

8月29日 發表된 共同聲明²²⁾에서도 「社会的 變革과 社會主義建
設의 方途와 形態의 多樣性을 個別的 諸國에 現存하는 서로 相異
한 政治. 經濟的 條件으로 부터 생기는 것이다. …… 革命實踐에서
自國의 勞動者 階級과 人民에 책임을 지는 것은 國際勞動問題의
權利임을 확인한다」라고 하였고 「個別的 黨과 諸國家간의 차이가
協力 發展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路線은 北傀의 對南赤化統一政策에 편리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즉 金日成은 前記 「티토」 환영연설에서 「朝鮮의 自主的
平和統一問題는 다만 南朝鮮으로 부터 外國軍이 撤収하고 外部의
干渉이 除去되는 條件에서만 實現된다」고 하였고 共同聲明에서도
같은 兩者는 같은 취지를 반복하고 「티토」가 南韓駐留 外國軍隊
의 撤退를 주장하였다.

註 22) 「朝日新聞」(日本), 1977年8月30日

여기서 보면 北傀는 南韓으로 부터의 美軍의 撤収는 美帝의 植民地的 狀態로 부터 解放되어야 하는 地域으로 보고 있고 이 論理에 따라 赤化統一政策을 云謂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北傀는 「티토」의 平壤訪問을 기해 그의 對美平和攻勢를 有利하게 하는 對外政策姿勢를 새로이 표현하고 있으며 東歐諸國에서 共産黨 一黨獨裁가 수립되기 이전의 상황과 같은 유로코뮤니즘을 지지 찬성함으로써 對南政策의 妥當性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北傀의 對美平和攻勢의 상황을 보기로 한다.

美國과 北傀는 오늘날 彼此 關係正常化를 政策의 原則으로 하고 있다. 北傀의 경우 對美平和條約을 요구하고 있으나 平和條約이 체결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체결되기 이전에라도 關係正常化는 가능하다는 것은 日本과 소련, 日本과 中共과의 關係에서 볼수 있다.

먼저 美國의 對北傀政策을 본다.

「키신저」前國務長官은 在職時의 美國의 韓半島政策은 軍事的으로 韓國에 대한 防衛公約은 지킨다고 하고 政治的으로 韓半島에서 緊張을 緩和하기 위해 모든 努力을 다하겠다고 해 왔다. 그리고 이 緊張緩和의 方法으로 休戰當事者會議等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카터」政府는 美地上軍撤収를 먼저 내세우고 緊張緩和를 위한 政治的 方案을 제시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와서 「키신저」方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본다.

여하튼 前美國政府와 「카터」政府와의 韓半島政策의 差異는 前政府가 韓國을 中心으로 하는 政策인데 반해 「카터」政府는 기존하

는 韓美關係는 유지하되 北傀를 일단 獨立變數로 취급하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카터」政府는 1977年 2月 16日 北傀를 포함하는 14個 未修交國과의 國交를 檢討하겠다고 하고 3月에 와서 北傀를 포함하는 여러 未修交國에의 美國人の 旅行制限을 解除하였다.

그리고 北傀의 對美單獨講和要求에 대하여 美國은 韓國이 同席하는 경우에만 應할 用意가 있다고 하여오고 있다.

다음 北傀의 對美單獨平和努力을 보자.

北傀가 오래 동안 「美帝」의 철수만 주장하다가 對美單獨講和의 方向으로 政策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越南에서 1973年 1月 終戰協定이 체결되어 여기에서 6個月이내 美軍이 철수하도록 規定되고 美國의 하노이政權에 대한 經濟援助 (越盟側은 賠償이라고 하고 있음)를 약속한 뒤인 1973年 4月의 일이었다.

1973年 4月 北傀의 소위 最高人民會議 第 5期 2次會議가 美國議會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여 北傀는 「7·4 共同聲明」과 南北調節委員會가 金日成이 제창한 自主 平和統一 民族的 大團結의 三大原則에 의하여 성립은 되었으나 美軍이 駐屯하고 있고 韓國軍의 現代計劃등을 돕고 있기 때문에 南北對話가 잘 안된다고 하고 南·北韓까지 問題를 해결할 터이나 美國은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리고 이會議에서 金一의 報告는 「이제까지 싸우던 越南에서도 平和協定이 체결되고 美軍이 撤収하는데 停戰協定이 체결된지 20年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平和協定을 맺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南韓에서 美軍을 내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北傀는 그동안 戰爭의 形態로서 越南型을 韓國에 심으려 해왔는데 이때 부터 越南型平和를 韓國에 적용시키려 하였다.

다음으로 北傀가 正式으로 美國에 대하여 平和條約체결을 제의한 것은 1974年 3月 25日의 일로서 이는 유엔戰略의 一環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75年 제 30차 유엔總會에서는 美國과 單獨平和를 하자는 北傀의 주장을 담은 決議案이 우리側 決議案과 함께 通過되었다. 이어서 1976年 9月 北傀는 韓國을 除外한 美國과의 單獨平和條約을 요구하고 決議案도 제안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는데 이것은 그해 여름에 열린 非同盟會議의 不振과 8.18 事件의 결과였다. 이때 北傀가 그들의 決議案을 철회하면서도 第 30次 유엔總會決議의 조속한 履行 즉 美·北傀平和條約체결을 촉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끝으로 「카터」政府의 立場을 바라보면서 1976年 12月 中間부터 美國에 대한 呼稱은 종전까지의 「美帝」 「美帝侵略軍」등으로 부터 「美國」 「美合衆國」 「美軍」등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1977年 1月 27日 金日成은 久野忠治議員과의 對談에서 「카터의 駐韓美軍撤収등의 公約은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新年辭에서도 「美國으로 하여금 平和協定締結에 應해나서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2月에는 그동안 金日成이 「부토」 파키스탄大統領을 통하여 「카터」와의 접촉을 시도한 바가 보도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 「봉고」大統領이 平壤을 訪問하였을 때도 美國과의 직접 접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77年3月18日 朝總聯副議長 李季百은 시기적으로 美國의 越盟諮門使節들이 하노이에 到着한 다음 날을 택하여 記者會見을 갖고 「美國은 對韓政策을 再檢討할 시기가 왔다」고 하고 美-北傀間에는 公的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金日成은 韓國으로 부터 軍隊를 철수시키 겠다는 「카터」의 약속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李는 「카터」는 正義의 사나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美國과 對話하는데 어떠한 條件도 붙이지 않는다. 美軍撤収를 先行시키라던지 하는 條件도 붙이지 않는다. 우리는 최종적인 平和條約의 체결 美軍撤収 그리고 兩國人民間의 關係改善을 포함하는 모든 懸案을 討議할 것을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北傀의 對外關係狀況을 일별하였다. 北傀 스스로는 제3世界路線을 추구함으로써 그 對內外政策의 正当性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 情勢는 그들에게 有利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형식상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對南赤化統一政策이 뿌리를 박기는 어려운 사태가 차차 展開되고 있으며 北傀는 여기에 대해 상당한 초조감마저 갖고 있는것 같다.

예컨대 지난 9月8日 「政權樹立」 29周年記念 中央報告大會에서 朴成哲은 그 政權을 抗日革命 鬪爭의 榮光스러운 革命傳統을 이어받은 政權 즉 8.15解放은 金日成解放軍이 했다는 虛偽에 立脚하고 있고 北傀政權은 歷史的으로 짧은 기간에 先進的 社會主義制度와 自主的民族經濟 등으로 人民樂園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러한 주장은 오래 지탱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南韓의 實情과 관련하여 韓國은 北傀에 대한 敵對思想을 불어 넣으면서 軍事裝備를 끌어들이 武力을 增強 軍事的 挑發行動을 끊임없이 일으켜 情勢를 계속 긴장시키고 있다고 하고 또 平和統一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도 韓國과 些少한 關係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韓國政權을 承認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느니 하여 美軍撤収에 따른 韓國軍戰力強化와 유엔同時加入등 우리側の 平和共存理論이 점차 뿌리를 넓혀가고 있는데 초조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美國과 접촉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美國이 韓國과의 關係를 完全히 단절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北傀의 對外關係가 넓어지면 질수록 北傀의 非現實的인 政策은 암초에 부딪치고 말것이다.

따라서 問題는 어느 시기에 어느 方法으로 그들의 現在의 政策을 실질적으로 修正하고 나올 수 있는가의 問題가 제기된다. 이 問題는 項目을 바꾸어 檢討해 보기로 한다.

IV. 80年代 東北亞情勢展望과 統一問題의 展開

(1) 美地上軍 撤収에서 오는 情勢

이 項目에서는 駐韓美地上軍이 철수한 이후의 韓美關係의 성격과 美國과 北傀와의 關係가 單獨平和條約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접촉이 이루어 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韓半島 중심의 東北亞情勢를 展望하고 統一問題의 展開상황을 예상해 본다.

먼저 美地上軍이 韓半島에서 撤収를 예정대로 完了한 상태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

「브라운」美國防長官은 1977年7月26日 徐國防長官과의 共同記者會見에서 美軍撤収와 關聯하여 「美軍의 存在에 依存할 수 없이 軍事力의 均衡이 유지될 때 政治的으로 보다 安定될 것이다」²³⁾라고 하였다.

이 表現은 美國의 韓半島政策의 全部를 說明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表現은 美國地上軍이 撤収하더라도 南·北韓 間に 軍事力의 均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경우 비로소 北傀가 南韓을 相對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러한 경우 美國의 對韓公約을 믿지 않거나 韓國의 戰力을 無視하여 南侵을 기도할지 모르나 이를 阻止하거나 抑止함으로써 北韓이 南韓과 共存하는 길 외에 다른 方法이 없다는 認識이 들어야 南北韓關係가 政治的으로 安定

註 23) The Korea Times, July 27, 1977.

되며 美國이 軍隊를 두고 있는 한 美軍撤退를 口實으로 南·北韓의 共存이란 現實을 계속 인정하여 하지 않을 것이 다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美國의 立場을 우리가 反對할 名分이 없다. 独立的인 自主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實體의 保有를 美國에 맡겨 依託한다는 것은 치욕이요 또 맡겨 보았자 效果도 없는 것이다.

다만 問題는 南北韓간의 軍事的 均衡의 內容과 均衡유지의 方式 또는 制度의 問題에서 韓美間에 항상 意見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점은 이미 本 論文의 初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다.

그런데 美軍이 存在하지 않는 상태에서 南北韓이 均衡을 취하고 韓半島가 政治的으로 보다 安定된다는 상황은 어떠한 狀況을 말하는 것인가이다.

美國政府는 美地上軍이 철수하더라도 이 地域의 勢力均衡과 美國의 防衛構造에는 變化가 없도록 한다는 말은 결국 韓國軍의 戰力 增強과 役割增大를 의미할 수 밖에 없다.

韓國戰爭이래 美國軍隊가 制度上으로나 實質적으로 主된 役割을 다 해오다가 1971년에 美7步兵師團이 철수하고 一個師團이 남게 되었으며 休戰線 거의 全部를 韓國軍이 맡게 되었다. 이로서 美軍은 실제로 休戰協定 當事者로서의 유엔軍의 役割과 韓·美合同軍을 통한 作戰指揮權을 保有한다는에 지나지 않는 상태이다.

물론 1950年7月の 大田協定은 여전히 有効하며 制度上으로는 유엔軍 즉 美軍이 作戰指揮權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否認할 수

었다. 그리고 今年 7 月의 韓美國防長官會議에서 聯合司令部를 설치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1982年까지는 이대로 존속될 것이다.

그러나 美地上軍이 철수한 뒤는 南北韓간의 紛爭은 일단 韓國이 맡아서 처리해야하는 紛爭으로 된다. 즉 종래 美軍이 北傀의 南侵이 있는 경우 직접 즉각적으로 介入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에서 解放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南北韓간에 紛爭이 있는 경우 이 紛爭에서 解放된 狀態에 있으면서 이 紛爭에 대한 決定權을 갖일 수 있는나의 現實的인 問題에 부닥치게 된다. 美國은 自國의 軍隊가 駐屯하고 있는 곳에서 항상 政治的 軍事的 決定權을 保有해 왔고 또 그러한 경우 그 權限에 相應하는 實質的인 兵力을 유지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렇게 본다면 美國은 1982年 美地上 兵力이 撤収한 뒤인 그 때까지 현재의 休戰條約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유엔 軍司令部는 停戰會談用으로 존속되고 韓美間에 二元的인 作戰指揮體系가 생기게 되며 이 兩者간에 새로운 協調體制가 생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韓美防衛條約 第4條가 美國은 權利로서 韓半島에 軍隊駐屯与否를 決定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이 意味는 現實的인 意義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韓美關係와 韓國의 對外關係狀況은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韓國은 歷史上 처음으로 韓國軍에 대한 地上戰에서의 作

戰指揮權을 완전히 가지게 될 것이다.

둘째 美國은 空·海軍을 유지하고 특히 空軍에 있어서 韓美合同軍을 유지시켜 이를 통해 韓國의 北傀에 대한 報復的 攻擊力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즉 美國은 南北韓간 軍事力 均衡의 有力한 條件으로서 駐韓美空軍의 役割을 계속 유지함으로서 韓半島의 政治的 運命에 決定權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셋째로 이러한 경우 現代式裝備에 대한 要求를 部分的으로 충족시키면서 韓國은 北傀에 대해 보다 独自の인 主体的인 立場을 취할 것이다.

넷째로 이러한 경우 韓美防衛條約으로 말미암아 美國이 韓國이 만드는 情勢에 말려들지 않으려 할 것이며 그러한 만큼 韓美防衛條約은 有名無實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北傀의 事情이 南韓에 비해 好轉되지 않는 경우 北傀는 長期的으로 그들의 非現實的인 政策을 修正 없이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섯째 이 단계에 와서 南北韓의 互에同時加入이나 南北韓간 交互承認이 先行될 (無秩序하게) 것이며 韓國의 共產圈과의 關係도 증대될 것이다.

일곱째 특히 北傀가 「티토」의 平壤訪問을 기해 自主路線을 명백히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리고 소련이 反對하는 유로코뮤니즘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北傀의 입장을 이상더 지지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덟째 만일 그간 台灣問題가 中共에 滿足스러운 方向으로 해결

된다면 中共은 현재의 北傀全的支持의 자세를 수정할런지. 모른다.

이상에서 본다면 美軍이 철수한 상태에서 「브라운」長官이 말한 데로 軍事的인 均衡이 南北韓간에 유지된다면 韓·美間 不協和音이 다소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南北韓관계의 政治的 安定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많다고 하겠다.

(2) 美·北傀關係 改善에서 오는 情勢

위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美國은 北傀를 韓半島政策 실시에 있어서 하나의 獨立變數로 보고 있으며 北傀는 美國을 休戰協定の 「實際的 当事者」²⁴⁾로 보고 對美平和條約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여 韓半島에서 美國과 越盟과의 關係狀況으로 展開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美國과 北傀간에 어느 정도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美·北傀간의 關係改善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美國이 北傀를 政策의 獨立變數로 생각하여 關係改善할 수 있는 경우 中·蘇對立의 와중에 있는 北傀의 立場을 크게 有利하게 해 줄것이다. 그리고 「티토」의 平壤訪問을 기해 自主路線을 더욱 강조하고 支配主義를 거부함으로써 美國과 접촉할 수 있는 理論的인 무장은 강화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제 3 세계 路線의 闡明은 美國과 平和條約을 체결하겠다는 理論的인 根拠를 美國이 休戰協定の 当事國이라는 形式論理

註 24) 제 30 차 유엔總會 北傀의 支持決議案

에 입각하고 있던 때보다 더 강력한 正当化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美·北傀간의 접촉중대의 가능성도 美国이 南北韓을 두고 友敵關係의 顛倒현상을 원하지 않는 한 스스로 制限性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美国은 현재와 같이 韓國의 참여없는 美·北傀간의 직접 協商은 하지 않는다는 原則은 北傀自身の 태도 변화—예컨대 유엔同時加入, 南北韓交互承認 南北對話의 再開 등—없이는 不可能한 것이기 때문이다. 美国은 美地上軍 撤収로서 韓國에 대해 壓力을 가한 다른 政策選擇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韓國에 대한 背信的인 行爲는 더욱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韓半島의 平和維持를 위해 韓國의 平和共存政策은 美国이나 日本의 利益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美·北傀간의 平和協定을 위한 努力이 진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韓國의 참여가 있건 없건 1982年 이후는 美国·北傀간의 平和協定은 있을 수 있는 關係正常化를 가져올 것 외에 實質的인 效果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韓半島의 休戰이나 平和의 当事者는 이미 美国이 아니라 韓國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면 美·北傀 改善의 努力은 美国이 韓國을 背信하거나 北傀가 그 路線을 변경하지 않는 한 成功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다. 물론 美国이 韓國을 背信하지 않는 線에서 그리고 北傀가 그 路線을 全적으로 變更하지 않는 선에서 美·北傀간 접촉의 餘地를 全적으로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韓國을 참석시키는 것을 前提로 하는 美·北傀간의 事前

協議라는 名目的 接觸은 可能하며 北傀는 그 路線을 유지하면서도 韓國의 軍備增強을 견제할 目的으로 즉 南北韓間 軍縮會談이란 名目的 새로운 자세로 南北對話를 제기하고 나올 수 있으며 이 問題에 관한 美·北傀는 關心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美國의 南北韓을 대하는 태도가 韓半島 平和와 平和的 統一의 條件을 조성하는데 南北韓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美國이 北傀와의 접근에서 南北韓關係의 正常化를 先行 또는 並行條件으로 강력히 제시하는 경우 美·北傀간의 關係改善은 韓半島平和에 도움이 될 것이며 따라서 北傀가 對南戰略을 修正하지 않는 한 美·北傀 關係改善에는 限界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美國이 北傀에 대해 南北韓 關係正常化를 적당히 의우고 다른 野心을 갖이고 北傀를 對하는 경우 美·北傀關係는 쉽게 改善될런지 모르나 韓半島平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하튼 美地上軍撤収와 關聯해서나 美·北傀 關係改善을 중심으로 해서나 韓半島의 軍事的 政治的 主人公은 南·北韓이 되어 가며 다음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해 美國이 列強의 하나로서 가장 有力한 役割을 할 수 있다는 地位에 있다는 사실은 인식된다. 軍事的 姿勢가 감소되는 만큼 政治的 外交的인 役割은 크게 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軍事的 姿勢를 수반하지 않는 美國의 外交的 役割의 成敗는 오히려 南·北韓 当事者간의 關係狀況에 左右될 것이다.

V. 맺 는 말

1980年代는 현재의 상황에서 다른 예정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韓半島周邨에서 있을 가장 중대한 事變은 美地上軍撤収의 完了이다. 이러한 美地上軍撤収가 完了될 무렵에는 台灣問題가 해결되어 美·中共關係가 正常化되고 美國의 韓半島平和定着努力에 도움을 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美國과 中共은 특히 中共은 1972年2月 上海共同 코뮤니케에서 밝힌 제3者를 위해 交渉하지 않는다는 原則을 고수하여야 할 것이며 北傀의 口味를 상해가면서 韓半島平和定着에 先導的인 역할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駐韓美地上軍이 철수하고 韓半島에서 平和와 同時에 戰爭의 主人公으로서의 韓國의 名實相符하는 登場이란 事實은 아무도 外面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韓·美간 二元的 作戰指揮體制를 前提로 하는 새로운 協力體制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있음직한 일은 첫째로 韓國의 軍備增強을 견제하려는 努力일 것이며 여기서는 美國과 北傀가 利害를 같이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南北對話는 軍縮問題를 갖고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기왕의 調節委나 赤十字會談에 관심이 없는 北傀로서는 軍縮問題를 제기하면서 韓國과 美國을 同時에 相對로 하고 나오는 경우 北傀는 ① 과거 對話를 斷切했다가 再開하는데 體面이 손상되지

않으며, ② 對話再開의 實質的 必要性을 만족시키고, ③ 南北對話에서 軍縮問題를 제기함으로써 韓國만이 아니라 美國을 同時에 상대함으로써 韓國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종래 입장을 고수할 수 있으며 - 軍縮問題에 集中함으로써 - 美國과 平和條約을 체결하겠다는 立場을 포기했다고 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둘째로 北傀가 軍縮問題를 들고 對南韓對話와 對美接觸을 시도하는 경우 政治的 問題를 가능한 排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즉 軍縮問題를 다루는 南北對話에는 中共이나 소련도 그 나라의 立場을 표명하기가 쉬울 것이다.

中共은 韓半島가 非核地帶化하는데 關心이 있을 것이며 여기에 소련과 日本도 關心이 없지 않을 것이다.

南北韓間의 軍縮問題를 둘러싼 對話가 이루어진다면 이미 美地上 軍이 나가고 作戰指揮權이 韓國에 移讓된 상태이면 南北韓 不可侵 協定の 체결로 까지 발전하지 않는다는 保障은 없다. 이 경우 美國과는 北傀는 비슷한 協定을 맺으려 할런지 모르며 美國은 北傀와 이런 協定을 체결하느니 空軍 基地는 그대로 둔채 철수하려 할런지 모른다.

對話는 그것이 軍縮을 다루는 對話이건 人道問題를 다루는 對話이건 그것은 그 自体 完全한 괴차간의 独自の인 政治行爲이다. 따라서 對話가 있었으나 協定이 뭐 따라야 한다거나 뭐 따르리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판단이다. 對話는 그 자체로서 自足的인 目的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南北韓間에 軍縮問題가 80年代의 이슈이며 여기

에는 美·中共을 위시한 有関국이 모두 관심을 갖일 문제라는 이상으로 추리를 진 행시킨다는 것은 무리한 일일 것이다.

여하튼 美軍의 撤収와 韓國의 軍事力 增強 여기에 따른 韓半島 紛争에 대한 制度的 實質的 責任과 役割이 韓國에 맡겨질때 美國은 이곳에서의 役割과 發言權은 줄어들며 이 경우 韓國을 위시한 南北韓간의 軍備競争문제 有関국의 共通的인 関心事일 것이며 여기에 軍縮을 앞세운 南北對話와 여기에 대한 列強의 政策的 関心表明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方向으로 事態變化는 不可侵協定체결과 南北韓 平和定着을 內容으로 하는 우리의 統一政策은 보다 現實的인 것으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

— 끝 —

10-10-10

